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농번기 맞아 '농촌 일손돕기 행사' 실시

청년농부터 시민농장까지... 농촌에 손 내민 공사 직원들
비축농지 스마트팜·양파 수확 현장 등 두 차례 봉사활동 전개
"농촌과 함께, 땀 흘린 시간... 지속 가능한 공공의 책임 실현"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등록 2025.07.01 09:06:47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직원들이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제공)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는 농번기,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가 두 팔을 걷고 현장으로 나섰다. 안성지사는 지난 20일과 26일 양일간 지역 농가를 직접 찾아 일손을 보태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에 초점을 맞춘 '현장 중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20일에는 안성지사에서 최초로 준공된 '농지은행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해, 공사 직원들이 토마토와 오이 수확은 물론 스마트팜 내부 청소작업까지 도왔다. 해당 시설은 청년농에게 스마트팜을 장기 임대해 영농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주는 모델로, 이날 활동은 스마트팜 운영자인 유호근 청년농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청년농 유 씨는 "스마트팜은 연중 출하가 이어지기 때문에 내부 청소가 쉽지 않았는데, 공사 직원들 덕분에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26일에는 '시민감시단 클린가디언즈' 소속 최찬규 씨의 농장을 방문해 양파와 딸기 수확을 지원했다. 특히 장마철을 앞둔 시기라 양파 수확의 긴급성이 높았던 만큼, 공사 직원들의 신속한 참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단순한 노동 지원을 넘어, 지역민들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영조 안성지사는 "이번 일손돕기는 농작업 그 자체를 넘어, 고객과 함께 땀을 흘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호흡을 맞추는 현장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지사는 이번 일손돕기 활동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농촌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